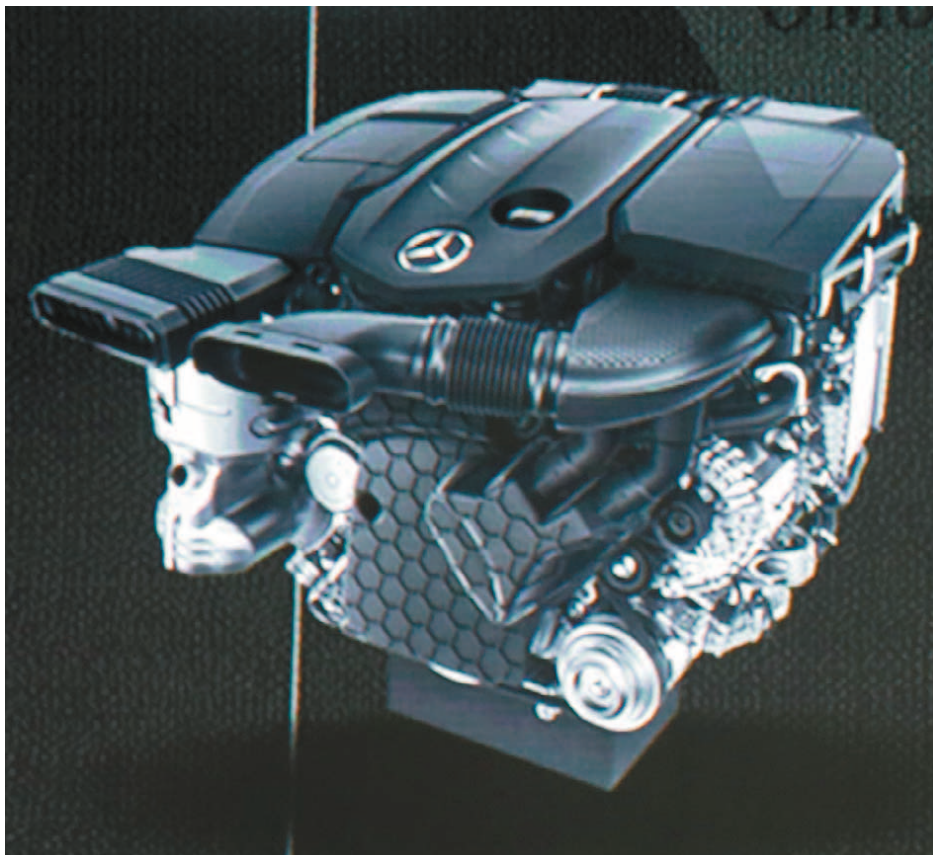


수입차 1위 벤츠도 배출가스 '거짓 광고'

벤츠·포르쉐·닛산 제재 후에도 환경부 인증을 광고에 부당 활용 아우디·폭스바겐 등에도 과징금



벤츠, 포르쉐 등이 배출가스 관련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벤츠 디젤 엔진. 원성열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이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와 포르쉐, 닛산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한국 닛산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각 사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제재 수위는 전월회이나 소회의에서 결정한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결론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포르쉐, 닛산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가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EGR) 등을 불법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들은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의 인증 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들은 실제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면 EGR 작동

을 멈추고 SCR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미세 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당시 각 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추가 제재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 등 조치 이후에도 각 사가 차량 보닛 등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하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이뤄졌다. 부당하게 취득한 인증을 광고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적법한 경우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구매는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이었어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

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월회의를 열어 각 사에 처분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도 과징금

공정위는 9일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차량 1만대 가량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에는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능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형성했다"며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표시광고법 위반 차량은 3만7154대에 달해 과징금 규모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사례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ereno@donga.com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협상 결렬

중고차 업계 요구 수용 안해...중기부가 최종 판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상생협약안 도출에 실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의 중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구성한 단체다. 지난 6월 출범해 3개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동안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일정비율의 단계적 진입, 거래대수 기준, 중고차 매집부문,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지만 완성차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매집 제한'과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중소기업벤처부가 하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2019년 초 지정기한이 풀렸다. 이후 중기부는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중기부는 향후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GMTCK,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식

청라 주행시험장 내 길이 600m·4개 차선 규모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청라 주행시험장 능동 안전 시험로에서 주행 중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사진제공 | 한국지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10일 청라 주행시험장 내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식을 개최했다.

10일 GMTCK 청라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식에는 로베르토 램펠 G

MTCK 사장과 브라이언 맥머레이 부사장 등 GM 임직원들이 참석해 능동 안전 시험로의 완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완공된 능동 안전 시험로는 길이 최대 600m와 폭 15m의 4개 차선 도로 규모로 자동 긴급 제동, 후측방 자동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등 신차평가제도(NCAP)에 활용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차량의 다양한 능동 안전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로베르토 램펠 사장은 "능동 안전 시험로 완공을 통해 청라 주행시험장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쉐보레를 비롯한 GM 내 브랜드 제품을 위한 능동 안전 기술 개발을 통해 GM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차량 개발 조직인 GMTCK 내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만 해도 충전 OK...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무선충전 실증특례 승인 타 대역 서비스의 영향 여부 등 확인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60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제네시스

주차장에 전기차를 세워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대가 열린다. 그 동안에는 전파법상의 주파수 규제로 국내 서비스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 기술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이 신청한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에 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 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

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상 85kHz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도 불가능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도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부가 조건은 무선국 운용 전 실사용 환경에서 타 대역 서비스에 영향 없음을 확인, 기존 이용자들이 혼·간섭을 줄 경우 즉시 운영 중단, 관계기관(국가기술표준원)·시험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의 충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전기차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60에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자동차경주협회-자동차안전학회 모터스포츠 안전·발전 힘 모은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회장 손관수)와 한국자동차안전학회(KASA, 회장 이경수)가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회의실에서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회원사 가입을 시작으로 자동차 안전분야와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교류, 자동차안전 및 모터스포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모터스포츠 안전기술 및 부품인증 자문을 비롯한 각종 미래 발전 구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월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하는 국제대학생 자동차 창작경진대회 참가자에 대한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교육 및 라이선스 제공 사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학회와 스포츠 단체의 장점을 결합하는 실질적 협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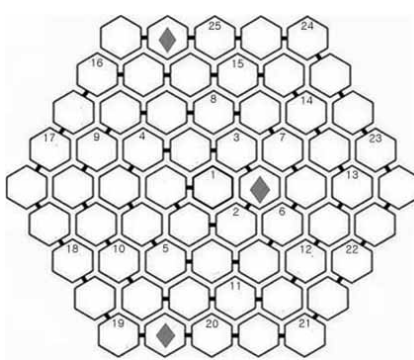
■ 스토쿠문제

		4			1			
8		5		7				9
9	1		3			2	7	
		3	6	7				
6		1	4					3
		9	8	5				
3	9		4		7	5		
5		8		9			2	
		8			9			

■ 스토쿠정답

4	9	6	1	9	8	8	7	9
2	1	6	7	2	8	9	7	3
5	2	8	2	7	1	6	8	8
9	7	5	8	7	6	7	1	2
8	8	2	7	6	1	2	5	9
1	6	7	5	9	2	8	8	7
7	2	9	8	8	7	9	1	6
6	8	7	1	9	2	9	8	
8	9	1	9	2	6	7	8	7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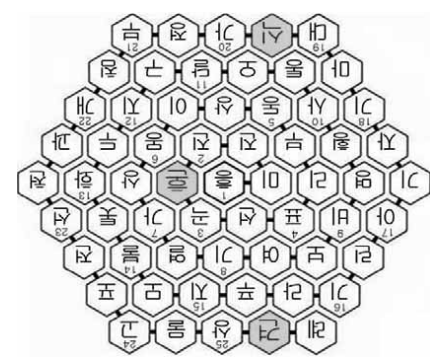


■ 열쇠

01. 흥미가 넘칠 만큼 많다는 뜻. 02.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 03. 철도 선로의 곡선 부가 시작되는 곳이나 끝나는 곳에 세우는 표. 04. 마음이 음충맞아서 결과 속이 다름. 05. 기거를 함께 하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 06. 헛된 생각을 즐겨 하는 사람. 07. 증기가 스 전기 등으로 열을 가하는 장치. 08. 이익을 주고 모자람을 보냄. 09.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 죽음. 10. 교통망 등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11. 소 한 필이 끄는 짐수레. 12. 손가락 끝으로 그린 그림. 13. 장작을 모아 질러 놓은 불. 14.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 15. 짚의 날개. 16. 지혜가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17. 잔재미가 있는 모양. 18. 말을 타고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부대. 19. 음식을 남달리 많이 먹는 사람. 20. 고용되어 돈을 받고 집안 살림에 딸린 일을 하는 여자. 21.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저냐·누름떡 등의 총칭.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쓴 다음 ◆칸을 이 어놓으면 결혼기념식(45주년) 명칭이 됩니다.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